

# 티베트 고대 불서, 현대 언어로 번역한다

### 종사르 켄체 스님의 '백년 프로젝트' 순항 중

23만 1,800여 쪽에 달하는 티베트 고대 불서를 영어 등 현대 언어로 번역하는 '백년 프로젝트 - 84,000'가 순항하고 있다고 <The Star> 지가 보도했다.

<The Star> 지에 따르면 '백년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1월 히말라야 불교계를 대표하는 드중살 켄체(Dzongsar Khyentse) 스님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오는 2110년까지 티베트 대장경을 비롯해 고대 불서를 번역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2015년까지 중요 티베트 장경을 선정, 우선 영어로 번역하는 한편 인터넷 플랫폼을 개발·시범 운영하며 번역 성과를 공유한다. 이후 2035년까지 티베트 대장경을 영어로 완벽한 후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을 정비해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2110년까지는 원전과 1차 영어 번역본을 근간으로 현존하는 언어로 옮긴다.

"현재 '백년 프로젝트'에는 15개국 153명의 관련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The Star> 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종사르 켄체 스님은 "현대 문명에서 티베트 불교의 정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며 "백년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탄 불교의 주요 학술이자, 불교영화 감독으로 잘 알려진 종사르 켄체 스님은 이를 위해 옥스퍼드대학, 베이징대학 등 세계 유수 대학에서 순회 강의를 진행하며 관련 학

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한편, 직접 메가폰을 잡았던 '컵'(The Cup · 1999), '여행자들과 마법사들'(Travellers and Magicians · 2003), '바라-축복'(Vava: A Blessing · 2013) 등의 불교영화 수익금 전액을 '백년 프로젝트'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세 편의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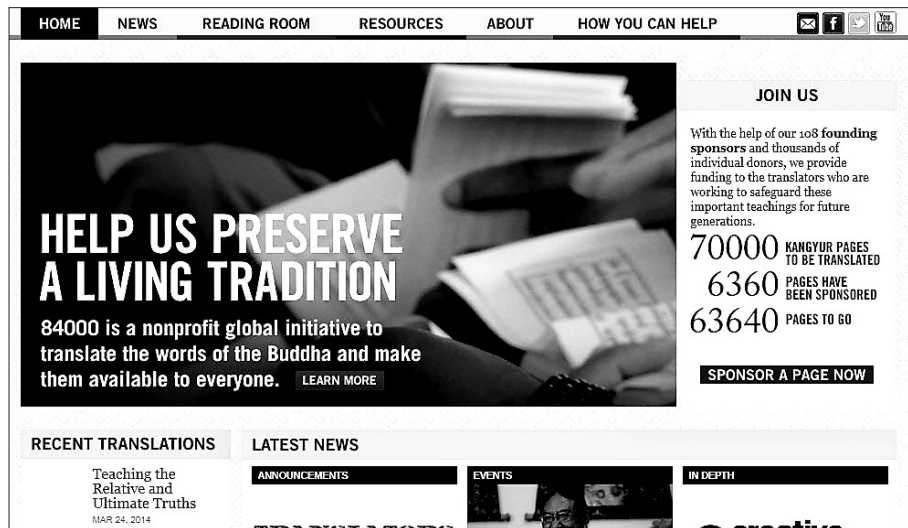
'백년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인 황 징 루이(Huang Jing Lui) 박사는 "역사적으로 역경 사업은 불교 부흥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현재 티베트 장경의 5% 정도만이 영어로 번역되었

### 2010년 1월 착수... 100년 작업 15개국 153명 학자 번역 동참

을 뿐"이라고 진행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황 징 루이 박사에 따르면 '백년 프로젝트'는 티베트 대장경의 경·율장에 해당하는 까규르(Kangyur)와 논장에 해당하는 탕규르(Tengyur)를 비롯해 티베트 고대 불서를 포괄하고 있다.

<The Star> 지는 황 징 루이 박사의 말을 인용, "이중 까규르에는 고대 인도와 티베트의 불교 학자들이 철학·과학 등을 주제로 기술한 4,000여 편의 논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관련



티베트 고대 불서를 영어 등 현대 언어로 번역하는 '백년 프로젝트-84,000'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백년 프로젝트' 홈페이지.

학계의 사유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The Star> 지는 "백년 프로젝트"에서 먼저 주목하고 있는 티베트 장경을 비롯한 고대 불서는 560여 종"이라며 "현재 153명의 관련 학자들이 영어,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에 능숙하다고는 하지만, 각각의 장경과 불서에 담겨있는 의미에 찬사유를 풀어내는 과정이 녹록하지 않다"고 전했다.

"고대의 사유를 옮기게 번역할 수 있는 이들이 턱없이 부족해 관련 학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종사르 켄체 스님은 "번역할 때 적합한 용어를 선택해야 하는 데 그 과정이 어렵다"며 "다양한 관점과 방향에서 용어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잘 훈련

된 학자들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백년 프로젝트'의 번역에 참여하고 있는 줄리아 스텐젤(Julia Stenzel) 박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학자들 모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다"며 "티베트 불교의 자랑거리는 현재까지 잘 보관되어 내려온 방대한 분량의 대장경"이라며 "이를 현대의 언어로 옮기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큰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줄리아 스텐젤 박사는 현재 <허공장보살경(Akṣaya-bodhisattva-sūtra)>을 번역하고 있다.

'백년 프로젝트 - 84,000'의 번역 성과는 'http://84000.co/'에 접속, 온라인으로 살필 수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종교차별 항의 소송에서 불교 학생 승소

### 美 루이지애나 네그릿 학교 불교도 학생에 기독교 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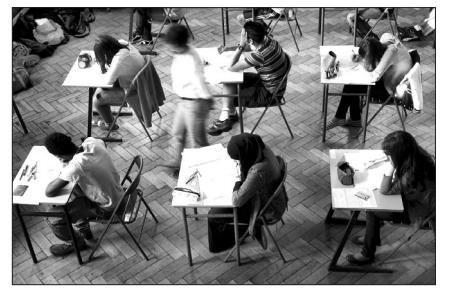
기독교 신앙을 강권하던 루이지애나의 한 학교에서 불교도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부모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언론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는 최근 "기독교를 강권하던 네그릿 학교에 항의하던 학부모에게 학교 측은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했다"며 "법원은 학생이 다른 학교로 통학하느라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에 대한 위자료로 4천달러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앞으로의 통학비도 교육청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태국인 부모의 영향으로 불교를 믿는 태국계 미국인 학생이 종교적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면서 시작됐다.

네그릿 학교 라타 로야크 교사는 "세상이 6천년전 신에 의해 창조됐고, 성경 말씀은 모두 올바르므로 진화설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쳤으며, "○○이 창조한 것들은 얼마나 경이로운가!"라고 시험문제를 내기도 했다.

이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주님'이었는데 문제 학생이 이 답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는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태국계 학생을 비하했다. 학생의 부모는 이에 대해 항의하자 학교 측은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근처 다른 학



기독교 신앙을 강권하던 루이지애나의 한 학교에서 불교도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부모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교로 전학하도록 했다.

부모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승소를 통해 △학교 관리자들은 종교 활동을 장려하거나 금지할 수 없음을 △종교 서적을 읽어오라고 과제를 내지 말 것 △종교 교육을 목표로 삼을 수 없음을 △수업이나 학교 행사에서 개인의 신앙을 드러내지 말 것 등의 사항을 이끌어냈다.

루이지애나 ACLU의 책임자는 "어떤 어린이도 교사가 신앙을 강요한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며 "이 합의 사항들은 해당 지역 학교에서 더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냐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세계 최대 황금 불상 탄생

중국에서 순금을 323kg이나 사용해 만든 세계 최대 황금 마주신 불상이 탄생했다.

4월 13일(현지시각)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동남부 푸젠성 푸톈시 야바다 메이저우섬에 있는 마주사찰은 지난 11일 새로 만든 황금 마주신 불상에 대한 첫 공양의식을 가졌다. 이날 공개된 마주신 불상 제작에는 순금 323kg이 들어갔으며 높이만 3.23m에 달한다. 불상은 중국 본토

와 대만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278일에 걸친 주조 작업 끝에 완성했다. 불상을 만드는 데는 1억686만위안(약 180억원)이 들었다. 순금으로 만든 마주신 불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마주신은 중국 동남부 연해 지역의 항해를 관장하는 전설상의 여신이다. 마주사찰은 마주신을 모시는 총본산으로, 마주신 신도들에게는 '성지'로 불린다.

이냐는 기자



중국에서 순금을 323kg이나 사용해 만든 세계 최대 황금 마주신 불상(사진)이 탄생했다.

## 와이오밍주 사로잡은 '아님 툽텐 스님'

### "간결하고 명쾌한 법문과 명상 지도에 쏙 빠졌어요"

미국 와이오밍 주의 잭슨 홀(Jackson Hole)의 벽안 불자들이 티베트 스님의 법문과 명상에 쏙 빠져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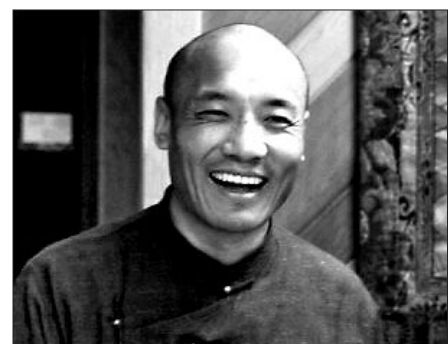
<USA> 지는 "아남 툽텐(Anam Thubten) 스님의 간결하고 명쾌한 법문과 명상 지도가 잭슨 홀 지역 주민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며 "스님이 주석하는 다르마타 재단(Dharmata Foundation)에 벽안 불자들의 발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명상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르마타 재단의 설립자이자 12년 전부터 잭슨 홀 지역의 청장년 불자들의 신심을 다져온 아남 툽텐 스님은 올해로 7회를 맞은 '잭슨 홀 대중 법회'의 증명법사로 나서, 오는 5월 초순까지 매 주마다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아남 툽텐 스님은 잭슨 홀 지역의 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스님"이라는 '잭슨 홀 대중 법회'의 진행을 총괄하고 있는 루이스 레이슬리(Louise Lasley) 씨는 "그 이유를 이 지역의 청장년 불자들과 십여 년 넘게 교류해 왔다는 점도 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스님의 가르침이 '간결'하고 '명쾌'하다는 데서 더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USA> 지에 따르면, 아남 툽텐 스님은 아이다호 주에서도 매년 지역 불자들의 주목을 한껏 받는 대중 법회를 기획, 진행해 오고 있다.

<USA> 지는 루이스 레이슬리 씨의 말을 인용, "와이오밍 주보다 앞서 열리는 아이다호 주의 대중 법회에는 '잭슨 홀'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청장년 불자들을 쉽게 찾을



아남 툽텐 스님의 간결하고 명쾌한 법문이 미국 와이오밍의 벽안 불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잭슨 홀의 청장년 불자 층이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남 툽텐 스님의 오랜 '노력'과 탁월한 '대중 친화력'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잭슨 홀'의 빼어난 자연 경관에 내재되어 있는 영성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키 산맥의 산간 지대에 앉아 있는 '잭슨 홀'은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관광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영화 '호르는 강물처럼'의 로케 현장이었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쾌적한 날씨로 인기가 높아 명사들의 별장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USA> 지는 지난 2007년부터 아남 툽텐 스님의 대중 법회에 참여해 온 프랭크 컬(Frank Curl) 씨의 말을 인용, "지난해 말 잭슨 홀에 신축된 '올드 윌슨 스크 커뮤니티 센터(Old Wilson Schoolhouse Community Center, 이하 '올드 윌슨 스크')의 역할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올드 윌슨 스크를 잭슨 홀 불자들의 서원이 모여 신축된 불교 센터로, 이곳에서는 아남 툽텐 스님의 명상 프로그램과 수련회 가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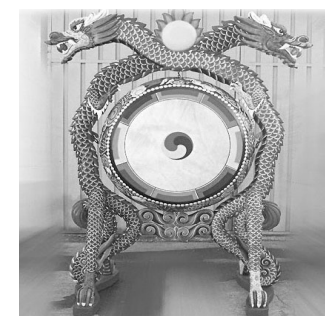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 현대 칼라 산업 지붕 공사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